연중 제26주일
제 1 독서 : 민수11, 25-29
제 2 독서 : 야고5, 1-6
복 음 : 마르9,38-43.45.47-48.

숲정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르 9,41).

강 론

"죄의 유혹"

김 종 길 신부/해성학원 이사

"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르 9,42).

이 구절에서 연자맷돌은 소나 나귀가 메고 돌리는 상당히 큰 맷돌이다. 그리고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마태오 복음에서는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태 18,6) 하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치심이다.

이어서 비유 세 가지가 연속된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거나, 절름발이가 되거나, 애꾸눈이 되더라도 그 몸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비유들은 각 개인 내부의 죄를 가리키며 그 죄 때문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헝클어질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즉 몸의 일부분을 절단해서라도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가르치심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다. 지옥의 불도 꺼지는 불이 아니다(마르 9,48).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의 비유 말씀이 너무 잔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선한 충격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겠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환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죄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호하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를 갖을 것인가? 현세를 살면서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말씀이다.

소 리

"놀라지 않아서 탈"

사람들은 이제 여간해선 놀라지 않는다.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7명이나 되어도 그런가부다 하고 말고, 대학생들이 파출소를 홀랑 다 태워버려도 또 그랬나 하고 지나가고, 그 시위현장 맞은 편 길로 지나가던 사람이 권총알에(그것도 경찰이 위협하려고 쏜) 잘못 튕겨져 맞고 죽었는데도 재수없었군 하고 말고, 산업폐기물 매립지 마을 사람들이 못 낫는 피부병이며 괴질 기형아 출산에 시달리는데도 나는 거기 안 사는데 뭐 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방식의 운동들로 없애보려고 온 삶을 다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별종이나 되는 듯 두렵게 바라보는 우리들 대다수의 사람들도 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려니, 요지경판이지 하고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교인답지 못한데도 애써 평온을 유지하고 조용히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죄인들이다.

우리는 왜 끔찍한 세상 일들에 안 놀라게 됐을까? 우리는 다들 중산층이라서 점잖아졌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달리다 지쳤을까?

대통령 선거도 지고, 민주화 몇 십년 운동도 실패만 거듭했고? 우리가 이제 기댈 데는 경제적 안정과 소비의 즐거움 같은 것만일까?

가을이 되고 또 여기저기 단풍놀이 떠나게 될 때, 놀다가 그만 지치게 될 때, 잠시만이라도 끝없는 질문과 의문에 내 몸을 싣고 이 사회의 한가운데에 투신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음은 곧 해답이니…. 정

숲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⑤

"치명자산과 유항검 가족의 신앙"

치명자산에는 전주지방 신도들이 '치명성인'(致命聖人)으로 추앙한 유항검과 그의 가족 6인이 묻혀 있다. 그중에서 특히 유항검의 큰아들 유 요한과 자부 이 루갈다에 대한 신도들의 애정은 예나 지금이나 각별하다. 그래서 전주교구는 상식을 초월한 임청난 성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의 우물이 사막 위에 덮인 구름보다 좋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이곳에 묻히신 분들의 신심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항검의 신심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봉헌하는 삶'이라 하겠다. 그는 교회 발전을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을 뿐 아니라, 가정까지 하느님께 봉헌했다. 큰아들이 부부 동정의 성소(聖召)를 선택했을 때 그는 그들의 성소를 승락했을 뿐 아니라 성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그들의 결심이 아무리 백두산 같았다 해도 유항검의 도움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가족주의 사회에서 장자가 동정생활을 하려는 일에 지체 높은 양반인 부모가 선뜻 허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항검은 온 가족이 모두 희생되므로 사실상 하느님께 봉헌한 것이다. 더욱이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이 드는 것은 그렇게 광활한 토지를 소유했던 부호였건만, 그 가족이 처형된 후 이서면 재남리와 바위백이 사이 초라한 한토(寒土)에 묻혔으니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실감하게 한 일이다.

유 요한과 이 루갈다의 부부 동정 신심은 새롭게 생명을 불러넣어 소생시켜야 하겠다. 동정 부부생활을 새로운 이해없이 강조할 경우 창조적 제도인 결혼제도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고행주의 또는 금욕주의 신앙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정생활을 결행케 한 발원심은 성체성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성체를 받아 모신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인가를 절감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들은 만용을 부린게 아니라 예수의 성혈 공로에 힘입어 동정생활이 가능했다고 한다. 모든 행동의 주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 대한 사랑이었고, 그 예수로부터 잠시도 분리되고 싶지 않아서 오매불망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치명의 은해를 갈구했다. 그들에게 통회는 내일이 없었다. 그들은 적은 허물이라도 큰 허물처럼 살펴 대죄처럼 통회하는, 통회의 열애를 꺼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루갈다는 남은 친정 가족들에게 이웃을 용서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화목에 힘써 천주의 어좌(御座)되도록 간곡히 권고했다.

부부 동정생활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신(獨身)생활이 허락되지 않던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수도원이 없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던 최선의 임시변통이었다. 두 사람은 언약하기를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장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으면 재산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형제에게 주어 부모님을 모시게 하고, 자신들은 각자 헤어져 수도자적 생활을 하기로 했다. 그들의 신심의 최종 목표는 신(信)·망(望)·애(愛) 이 세 가지 덕(德)에 있었고, 모든 인간적 본능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삼덕에 진실했던 결과였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루갈다가 처형된 후 그녀의 몸에서 젖빛 피가 철철 흘렀다고 하며 그녀의 순결과 순수함을 강조했다.

치명자산 정상에 이분들을 모신 신도들의 의지는 이러했다. 여기 묻히신 순교자들의 정신은 산 높이처럼 받들어져야 하고, 이 산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하고, 이 정상을 오르며 겪는 어려움으로나마 그 순교의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열정이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16세기 전후에 로마 교회의 성전을 화려하게 꾸민 인물 중의 한 분인 교종 니콜라오 5세의 말을 씹어보고 싶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약함은 강해진다"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김 진 소 신부

주부사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88-8027 야간71-5827

순 꼬리로만 곰탕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 셉)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72-5801

개업 선물. 행사용품. 광고성냥
위생 젓가락. 상패. 트로피
노 령 기 획
(비사표 광고 전주대리점)
김 배 근(스테파노)
김 현 필(베 드 로)
☎82-6224

장록수 미용실
장 순 화(유리안나)
전주시 삼천동1가 585번지
목화상가 33호
☎ 223-9345

잠 깐!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보고"

지난 8월 말 나는 동창 신부들과 콘도를 빌려 설악산에 다녀온 일이 있다. 그때 하루는 시간을 내어 남한의 최북단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갔다. 물론 그곳에 간 것은 관광이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밀리서나마 북녘땅을 바라보며 통일의 그날을 그리고, 기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 전망대를 관광하기 위해서는 휴게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슨 소양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했다. 소양교육은 소강당에서 30분 정도의 반공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반공 영화가 으레 그렇듯 6·25전후 상황이 소개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조국의 발전된 모습이 장황하게 설명되었다. 그리고 최근 소련의 붕괴와 변화되어가는 동구권의 모습이 이어지더니 북한은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통일을 염원하는 개신교의 예배모임과 불교의 불공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천주교는 지학순 주교가 평양에서 누이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니, 북한에 다녀온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양을 크게 부각시켜 이들을 소영웅주의에 빠진 몽상가들… 운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북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반공을 뿌리로 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통일의 길은 묘연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이날은 남북한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날이다. 하나의 조선을 주장해온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UN에 가입하고, 흡수통일정책을 고수하는 남한의 입장을 보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오히려 분단을 고착시키는 일은 아닌지?

우리 모두 민주 역량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교 구 소 식

1. 제2무지개 가족 축성 및 지정환 신부 회갑미사 : 10월3일(목) 오전10시30분 무지개 가족.
2. 중·고 성가 경연대회 : 10월6일 오후1시 성심여고 강당.
3. 마니피캇 합창단 창립 10주년 기념 연주회 : 10월5일(토) 오후8시 중앙 성당, 입장료-1,000원.
4. 이 땅에 자주와 평화,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회 : 9월30일(월) 오후7시30분 전동 성당, 강사-함세웅 신부, 주최-정의구현 사제단.
5. 훠콜라레 남녀모임 : 10월6일 오후2시-4시30분 고등학교 이상, 가톨릭센타 3층.
6. 성령 쇄신 전국대회 : 10월14일(월) 서울 잠실체육관, 회비-1만원, 문의 84-3222.
7. 성모의 기사회 : 10월5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8.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10월3일(목) 10시-16시 덕진 성당, 미사도구 및 점심.
9. 전화번호 변경 : 중앙 성당 수녀원 77-1714, FAX 253-1714.

※ 축! 영명 : 29일(성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범영배, 박찬길, 경규봉, 이사정 신부님. 4일(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김기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 10월6일 성바오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10월6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 10월6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 3층 소성당 (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일터(4) 공공 물건을 아낍시다.

직장의 공공 기물들을 내 것처럼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룹시다.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전기 한 등, 전화 한 통 아껴씀이 내 직장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작은 소모품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요십이 (947) 김병오

서신동 성당 바자회

일시 : 91년10월17~21일까지
장소 : 숲정이 성당
내용 : 생필품,농수산물,음식, 차,세라믹요와 자기
※ 젓갈류 도·소매합니다.

여 직 원 구 함

연령 : 만18세-25세 미혼여성
* 자세한 것은 직접 문의바람.
김 복 례(도미니카)
☎(0683) 82-0115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꿈나무 골든베어
(0세~13세까지)
유아복 아동복
광진목화 사거리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 224-8929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 울 의 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오 미 용 실
신부화장 전문, 특수 헤어스타일
정통고데·컷트, 피부미용관리
완산구 중노송동 478-32
오 정 희(데레사)
☎ 88-1603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욱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본당의날 및 L.M목외행사 : 10월6일 전11시 장소－치명자산 (공식미사와 저녁미사 없음)
2. 성심회 월례회 : 2일 어머니미사 후
3. 자모회 : 1일 미사 후(꽃바구니 만들기)
4. 반회장 모임 : 2일 어머니미사 후(화요일)
5. 주일미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미사시간－새벽5시30분 전8시30분 전10시 후3시 저녁7시30분.
6. 성시간 : 3일 후7시30분
7. 월 사목회 : 4일 후8시
8. 금주청소 : 남노 3,4반 차주청소 : 남노 5,6반

□ 지난주 봉헌금 : 945,680원 □ 교무금 : 64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올뜨레아 성지순례 : 오늘 오전7시출발 : 장소.절두산
2. 밀알회 : 10월2일 오후6 : 30
3. 성체강복 : 10월3일 저녁미사 후
4. 자모회 : 10월3일 오전 10시
5. 사목회 : 10월6일 저녁미사 후
6. 대건회 : 10월6일 공식미사 후
7. 군인주일 : 10월6일 2차 헌금 있습니다.
   성당청소 : 10월5일 사랑하오신 어머니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김종성씨 부부 봉헌－박남수씨 가족
   차주전례 : 해설－정현자 독서－채용석씨 부부 봉헌－김수영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57,590원 □ 교무금 : 725,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입니다.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사목회 : 5일(토) 저녁미사 후 4. 성서읽기 : 에페소서 전체
5. 청소봉사 : 바다의 별Pr 6. 교무금 납부의날 : 매월 첫주(다음주)
7. 군인주일 : 다음주(2차헌금)
8. 금주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박시도 ②박경례 봉헌－서병철, 김단오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최원규 ②오귀남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01,210원 □ 교무금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 제26주일 : 10월은 로사리오성월 입니다.
1. 회의 : ①꾸리아－오늘 오후2시 ②사목회－10월2일(수) 저녁미사 후 ③자모회－10월3일(목)12시 ④반장회－다음주일(10.6) 공식미사 후
2. 알림 : ①미사시간변경－10월1일부터 새벽미사 새벽6시, 저녁미사 저녁7시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②예비자를 인도합시다－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날 오전9시(학생반)
3. 감사 : 불우교우들을 위하여 백미2가마를 보내주신 분과 헌금 2만원을 보내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03,850원 □ 교무금 : 83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본당의날 ! 미사와 나눔잔치에 적극 참여바람.
1. 10월부터 저녁 미사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2. 자모회 : 10월4일 어머니미사 후
3. 사목회 : 10월4일 오후 7시 30분
4. 구역장 : 반장 모임－10월1일(화) 오후3시
5. 견진교리시작 : 10월5일(토) 오후7시30분~9시30분(10월중 매주 토요일 4회, 11월중 2회)
6. 예비자 교리 안내 : 직장인반－목요일 오후7시30분 주부반－금요일 오전11시 학생반－토요일 오후5시

□ 지난주 봉헌금 : 533,430원 □ 교무금 : 1,00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헌금 바람 ※ 오늘 미사중 순교성인유해 친구있옴.
1.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2. 흥데레사 수녀님 영명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 후(기도바람)
3. 성가정회 : 10월1일(화) 11시.
4. 성마리아꾸리아 : 오늘 오후2시
5. 「전동100년」기념화보집 판매 : 권당 20,000원(사무실)
6. 성가정회 : 10월1일(화) 11시. 병자영성체 : 4일(금)
7. 성심유치원 운동회 : 성심학교 운동장. 오전10시

※ 금주보수비헌금액 : 395,000원 ※ 현재모금총액 : 248,442,801원 ※.현재신입총액 : 253,279,618원

□ 지난주 봉헌금 : 1,446,770원 □ 교무금 : 1,70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포교사업의 수호자 성데레사 대축일 : 1일 전6시, 후7시30분.
1. 성시간 및 성체강복 : 3일 후7시30분, 전신자 많은 참여바람 2. 사목회 상임위원회 : 5일 후8시, 각분과 계획서 준비 3. 구역반장 월례회 : 1일 전10시30분, 빠짐없이 참여바람. 4. 유아세례 : 5일 후2시30분. 대상자는 미리 신청서 접수바람. 5. 혼배미사 : 1일 후7시30분. 신랑－오승환, 신부－한미영. 6.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예선 : 오늘 성심학교, 많은 응원바람. 7. 지정환 신부 회갑 및 무지개가족 축성식 : 3일 전10시30분. 8. 회의 : 올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성심부녀회－2일 어머니미사 후.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23,690원 □ 교무금 : 1,14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본당 성지순례 : 오늘－해미성지
1. 사목회 : 다음주일 미사 후
2. 구역반장 월례회 : 10월1일(화) 저녁미사 후
3. 본당에 이사오시거나 이사를 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4. 이웃의 형제자매님들과 주일미사에 참여 할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합시다.
5. 청소봉사 : 은총의 중개자Pr.
6. 차주전례 : 최정순 독서 · 봉헌 : 노옥임, 강경식

□ 지난주 봉헌금 : □ 교무금 :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10월은 매괴의 성월입니다.
1. 축 ! 유아세례 : 오늘 오후 1 : 30(성당), 국교2년이하어린이
2. 해미성지순례 : 11월 10일(일) 참가비 10,000원(버스15대)
3. 우전, 효자본당 친선정구대회 : 오늘 오후2시(교육대학)
4. 모임안내 : ①사목회(금 오후8시) ②안나회(다음주 11시미사 후) ③까리따스회(금 오후3시)
5. 추석합동위령미사 : 181세대 봉헌
6. 부활반 예비자교리 안내 : ①월－09 : 30 ②목－후7 : 30 ③금－10 : 40
7. 청소년 신앙교육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8. 관할구역내에서 이사를 한 교우들은 교적을 정리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819,350원 □ 교무금 : 1,789,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 10월은 로사리오의달 입니다.
1. 반석회, 요셉회 : 공식미사 후 2. .방북구속자 석방 및 통일염원기도회 : 30일(월)오후7 : 30전동 3. 성전신축을 위한 첫갈판매 4. 본당의날(10월13일)행사에 협조할 은인을 구합니다. 5. .여성분과회 : 4일(금) 10 : 00미사 후 6. .안심리공소미사 : 4일(금)저녁 7. .나눔의 주일입니다.

※ 차주모임 : 꾸리아, 사목회

금주전례 : 해설－박명례 독서①임승동 ②조숙자 기도－정경수, 최순영

차주전례 : 해설－이태영 독서①조세열 ②이정금 기도－소철영, 강명선

□ 지난주 봉헌금 : 714,770원 □ 교무금 : 1,397,000원